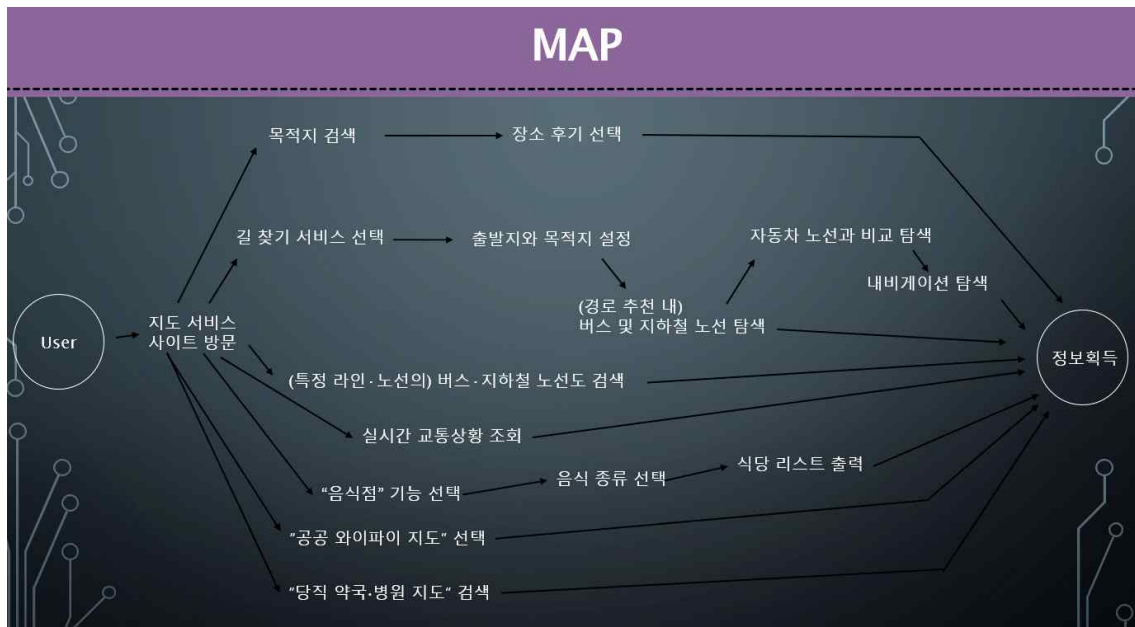


[종합설계1][02] 디자인 스프린트 2주차 보고서

테라피_201604145_이문영

1. 통합한 MAP

1주차에 작성한 조원들의 MAP을 토의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 통합한 HM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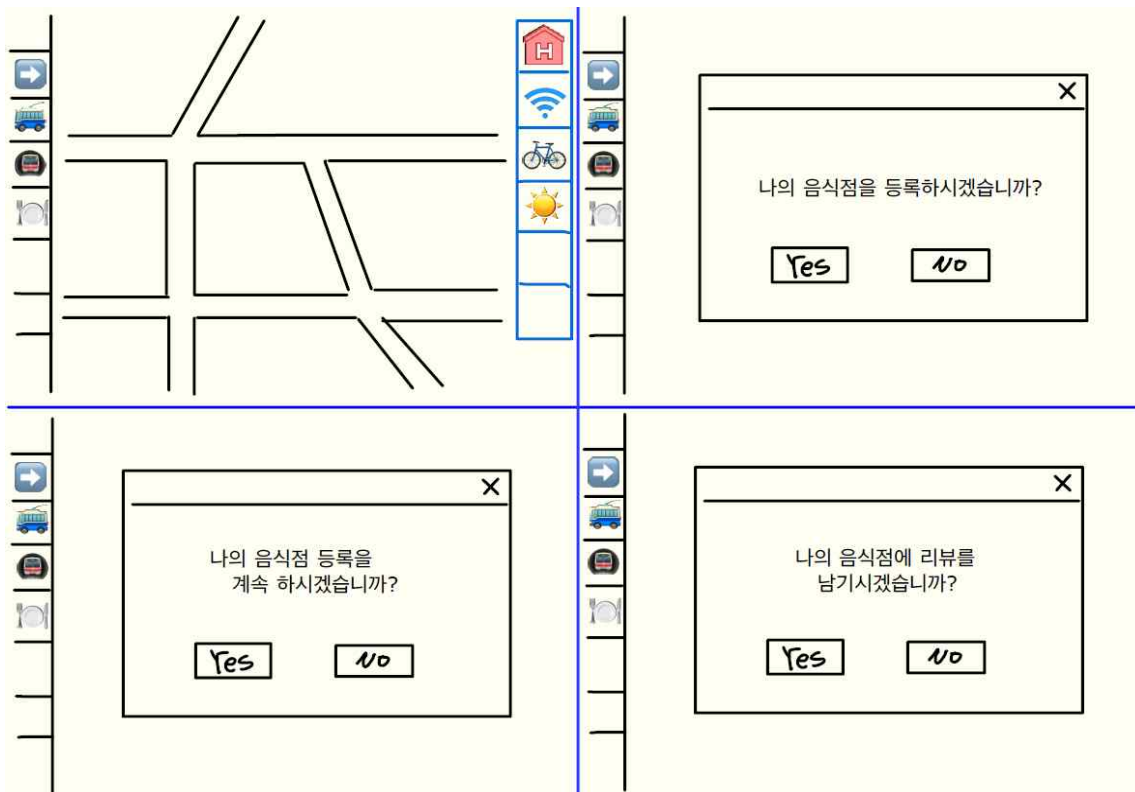
조원들이 1주차에 작성한 HMW를 합쳐서 중복되거나 다루기 모호한 것은 제외하니 12개의 HMW로 추려졌습니다.

1. 어떻게 하면 출력된 식당 목록이 내 입맛에 맞게 정렬될까
2. 어떻게 하면 현재 영업 중인 식당들만 표시되게 할 수 있을까
3. 어떻게 하면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있는 식당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을까
4.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식당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5. 어떻게 하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 위치 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6. 수집한 이용자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7. 다른 서비스와 연동하여 지도상에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8.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선별해서 표시할 수 있을까
9. 어떻게 하면 새로 생기거나 또는 사라지는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을까
10. 지도 내에 공공 와이파이 제공 지역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11. 사람마다 다른 도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12. 병원과 약국 정보를 표시할 때 당직 병원, 당직 약국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위의 12가지 질문 중에서 조원들과 상의하여 1, 2, 4, 10, 11, 12를 선정하였고, 이를 주안점으로 두고 LightinigDemo와 Crazy8을 진행하였습니다.

1. 어떻게 하면 출력된 식당 목록이 내 입맛에 맞게 정렬될까
2. 어떻게 하면 현재 영업 중인 식당들만 표시되게 할 수 있을까
3.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식당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4. 지도 내에 공공 와이파이 제공 지역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5. 사람마다 다른 도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6. 병원과 약국 정보를 표시할 때 당직 병원, 당직 약국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3. LightinigDemo와 Crazy8



1. 좌측 상단: 지도 서비스의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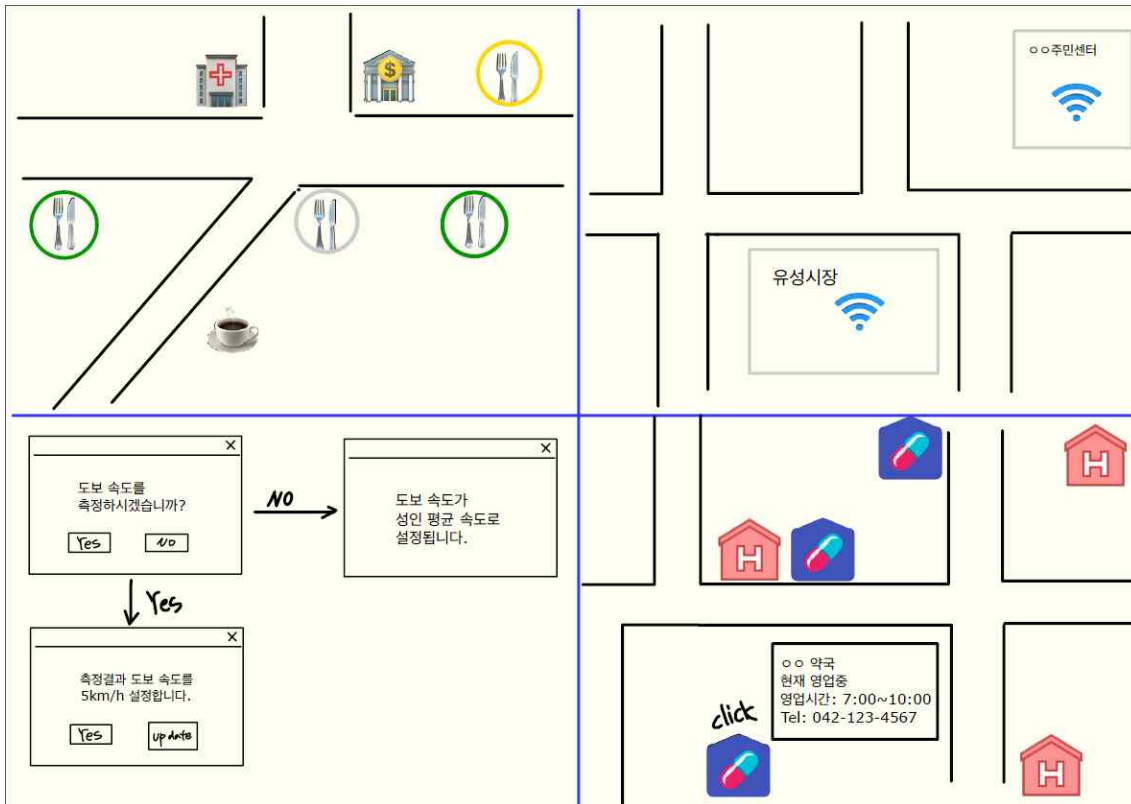
2. 우측 상단: 입맛에 맞는 음식점 목록을 출력하기 위해 “나의 음식점”을 등록하는 화면

Netflix, 왓차, 밀리의 서재 등의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선호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가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가게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 다른 사용자가 이용한 다른 식당을 리스트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3. 좌측 하단: “나의 음식점” 등록 서비스 진행 화면

4. 우측 하단: 리뷰를 유도하는 화면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할 때 1번 문제와 연관해서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번 질문의 솔루션에서 사용자의 선호를 알기 위해 음식점을 등록을 마친 후 "나의 음식점에 리뷰를 남기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팝업을 띄워서 리뷰를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팝업으로 리뷰를 유도할 때 사용자의 경험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좌측 상단: 영업 중인 식당만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화면.

현재 대개의 지도에서 음식점은 포크와 나이프를 나란히 둔 기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 중, 영업 종료,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다른 색상으로 지도에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번째 그림과 같이 영업 중일 경우 초록색, 영업이 끝났으면 회색, 브레이크 타임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면 한 눈에 영업 중인 식당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우측 상단: 공공와이파이 검색 서비스 화면.

공공와이파이는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주민센터,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여섯번째 그림처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 와이파이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공공 와이파이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좌측 하단: 도보 속도 설정 및 측정 화면.

많은 Fitness tracker App들은 GPS를 이용해서 도보 속도 또는 달리기 속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 속도를 입력하지 않기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성인 평균 속도인 4km/h로 제공하고, 더 정확한 도보 시간을 제공받길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도보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할 때 도보 속도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 우측 하단: 당직 약국, 당직 병원 검색 서비스 화면.

현재 당직 약국 조회는 "휴일 지킴이 약국", 당직 병원 조회는 "E-GEN"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서비스라는 토글을 생성해서 사용자가 기능을 실행할 경우, 해당 시간에 이용 가능한 병원, 약국 등을 지도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따로따로 사이트에 접속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빠르고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z8fqa2MF1w>

Github: https://github.com/pjw9412/designSprint_Therapy/tree/master/02